

칼빈주의 바로 알기 12  
칼빈주의 제네바 성경(무천년주의)  
개혁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문제점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칼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교회사 공부, 국가 교회, 자유 교회,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주의 이들은 국가 교회, 전체주의 독재로 도시와 국가를 다스림, 영혼의 자유 부인,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 복종하게 함,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의 오류 칼빈의 이런 사상들을 추종하는 신학, 개혁신학, 언약 신학 현대 이것을 조장하는 성경이 제네바 스터디 성경, 오늘 < >, 미들타운바이블 교회의 조지 젤러의 글(\*)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R.C.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The Reformation Study Bible, 1998)을 보자. (\*) 이전에는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한글 판(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NKJV, 편집자 대표, R.C. 스프로울, 다른 편집자들 (James Boice, Edmund Clowney, Roger Nicole, J. I. Packer and Bruce Waltke), 모두 이스라엘 대체 신학, 열렬한 칼빈주의자들

소개의 글: 이 성경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학적 유산을 보여 준다. 이 성경의 주석들은 종교 개혁 당시의 진리를 현대어로 다시 진술한 것이다. 신학적 노트의 다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인용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1917년에 나온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 그리고 이것을 능가하는 스터디 성경을 내서 개혁주의 신학을 펴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이것은 개혁주의 시각에서 기록된 첫 번째 스터디 성경이다. 스프로울은 50여 명의 개혁주의 학자들을 모아 이 일을 진행하였다. 1560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 출간 이후 일관성 있게 처음 만들어진 개혁 신학 스터디 성경, 세대주의의 스코필드 성경에 필적하는 개혁주의의 새 제네바 성경

1998년,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 스터디 노트는 이전과 동일하다. 2005년에는 ESV 역본으로 출간됨 그러나 주석은 거의 동일함

종교개혁(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도입부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 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시119:130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여러 면에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자유가 없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 한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더욱이 450년 전의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행17:11-12

우리는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므로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왜? 그런 부분들에서 개혁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으로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대표 편집자는 윌리엄 위팅엄(William Whittingham, 1524-1579)이다. 위팅엄은 영국 청교도(English Puritan)로 1533년 메리 여왕 박해 시절에 대륙으로 피신했고 장로교 신봉자였다. 위팅엄은 1555년 존 나스와 함께 제네바로 건너가 칼빈 등과 같이 활동하였고 1559년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존 나스의 뒤를 이어 목사로 사역했다.

제네바 성경은 성경 여백에 제네바의 성경 교사였던 칼빈의 사상을 담은 주석들을 많이 담고 있다. 즉 제네바 성경은 장로교 교리 혹은 체계에 입각해서 번역되고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로교 편향 주석 및 용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젤리의 말: 종교개혁 제네바 성경 주석 노트들을 만든 분들은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주석의 다수는 크리스천 삶에서 유용하다.

오늘 분석에서 나는 이들과 다른 부분들만 다루려 한다.

다른 부분들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칼빈 등의 주장에 따라 영해하는가? 이 차이가 개혁 신학(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차이이다.

### 어린이의 중생(Infant Regeration)

1664쪽 중생 항목 : 아기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비록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처럼 보논에 드러나게 이지는 않지만, 스프로울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달라고 편지를 씀. 2000년 6월 1일 스프로울의 비서가 편지를 보냄

뉴 제네바 스터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노트에서 아기들의 중생에 대해 언급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들 속에서 이루시는 일 즉 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이 일은 아기들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의 믿음은 믿기 전에 중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기를 먼저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중생과 그것으로 인한 믿음은 보기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중생이 믿음 이전에 있다. 아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아기가 중생하도록 만든 뒤 몇 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 아기도 중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시22:9-10와 눅1:15이다.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기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믿지 않는데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 침례 혹은 세례(Baptism)

이들은 침례(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가르친다(1557쪽). "신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어 뱃티조는 이런 식으로 만족될 수 있다(p.1776).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뱃티조라는 그리스말은 물속에 담근다는 뜻이지 뿌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붓거나 뿌리는 것은 죽어서 매장하는 것의 그림이 될 수 없다(롬6:4). 누군가를 매장할 때 당신은 먼지를 머리에 뿌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례가 언약 공동체로 이끄는 입교 예식이라고 말한다(note under Genesis 17:12).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 해당하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며 규례들의 언약이다(p.30, 584쪽).

개혁주의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이의 할례와 세례를 잘못 연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다.

### 유아 세례(Infant Baptism)

제네바 성경은 유아 세례를 조장한다. "믿는 성도들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대다수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일이다. 역사적인 개혁신학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믿음의 고백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 유효한 침례라는 주장을 반대하고 성도들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제되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도 않다. 성도들의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징표요, 봉인이라는 데 놓여 있다. 성도들의 아기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 사내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구약 성경의 사례가 이것을 요구한다((p. 38). 그들은 또한 집안 식구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유아 세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p.38). 그러나 행16:31-34은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므로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v.34).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간수의 집안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다. 아기들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침례는 항상 어른들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행8:38, 39,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 왕국(The Kingdom)

이사야서 11:6-9, 호2:18, 들짐승의 위협이 없는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발견하는 평안과 안전과 사랑의 상태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네바 성경 창 1:29-30 노트는 짐승들은 원래 초식이었다고 말한다. 왜 창1장의 짐승들은 있는 그대로 짐승들이고 사11장의 짐승들은 비유적인 짐승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칼빈의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데 짐승은 다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사는 짐승들이다.

#### 계시록(The Book of Revelation)

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대다수 학자들은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p. 2004). 만일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대로 A.D. 95년이 맞다면 이것은 개혁 신학의 언약주의 신학에 큰 치명타가 된다. 개혁신학 주장자들은 AD 70년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R. C. 스프로울 역시 과거주의자이다. 그런데 95년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70년에 다 성취가 되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 율법과 성도(The Law and the Believer)

"성도들은 노예 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다 (p. 1856). "성도들은 노예 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율법 아래 있고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p. 259).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형적인 가르침이다. 그들의 주장: 칭의 면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칭의 이후 성화 면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된다, 로드십 살베이션

#### 창조의 날들(The Days of Creation)

새 제네바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날에 대해 4가지 견해를 제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 연속 6일, 젊은 지구, 다른 분들, 날은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날 시대 이론, 다른 분들은 이 날들은 24시간 하루, 그러나 날과 날 사이에는 긴 기간이 있다. 어떤 분들, 날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이야기, 사람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 보여 줌. 이런 이론에서는 유한한 사람이 이런 날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편집자들은 이런 형태의 날들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see note under Genesis 1:5, p.7). 이들의 주장 요약: 하나님이 기록한 창세기 1장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다. Scofield Bible and New Scofield Bible이 재창조 이론을 주장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갭 이론을 믿지 않는다. 최근의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창세기 1장의 6일은 24시간 하루, 연속 6일,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 안식일과 주일(The Sabbath and the Lord's Day)

"새로운 언약 하에서 안식일은 새롭게 되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의 첫 날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크리스천 안식일로 여겨졌다(p. 584).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말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한다(행

13:27). 왜 그는 일곱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가 역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행13:14; 13:42; 16:13; 17:2; 18:4)? 왜 그는 바뀐 것을 모르는가?  
이유: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일은 주일, 안식일은 안식일,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면 안 된다.

#### 교회(The Church)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속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갈6:16). See page 1864.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다(note under Gal. 6:16). 그러나 바로 이 노트 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다(p.1858).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see note under Rom. 11:26). 1638쪽,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이다. (이것은 교회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찾아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거나 그 안에 남아 있는 믿는 자 전체를 말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거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16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한다.

#### Vicarious Law Keeping

The note under Romans 3:24 teaches that justification is grounded not only in Christ's death on the cross where He bore the penalty of God's judgment against us but also "it is grounded in Christ's lifelong obedience in which He fulfilled the precepts of God's law for us." "In His active obedience, Christ fulfilled the positive commandments of God on behalf of His people. This positive righteousness is granted as a gift through faith to believers" (p.1670 and see also the note on p.1718). This idea of "vicarious law-keeping" is not in line with the teaching of the epistles. I would recommend the discussion of this point in William Newell's commentary on ROMANS (see pages 190-193). This is an important point that is missed by many believers. For a full discussion of this important issue, see Vicarious Law-Keeping (Christ's Active Righteousness).

####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

이것은 30, 584쪽에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 성경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라.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명확하게 보인다고 가르친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그런데 왜 개혁 신학 하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언약들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이론을 펴는가?

####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Regeneration Precedes Faith)

"중생의 열매가 믿음이다. 중생은 믿음보다 앞선다(p. 1664).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가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은 과거의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p. 1904). 이것은 심각한 교리 문제이다. 그들은 사람이 믿기 전에 먼저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다(요20:31; 3:16; 1:12; etc.).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뒤(생명을 받은 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Is Faith the "GIFT OF GOD" in Ephesians 2:8?

The NGSBs는 엡2:8에서 이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 혹은 구원받은 것이다.

###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The NGSB는 1682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친다. 편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see note under 2 Peter 2:1).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고 대속하신다고 가르친다(see p. 2040). 그래서 딤편전2:1,4,6,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된다. 즉 하나님은 한 부류의 사람들만 선택하지 않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한다(p. 1909). John 3:16의 세상 역시 온 세상의 선택받은 자들을 뜻한다.

### 유기(Reprobation)

The NGSB는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무조건적인 선택 유기를 가르친다 (p. 1487). "유기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p. 1784). In response to this, the note by C. H. Mackintosh is appropriate:

It is deeply interesting to mark the way in which Scripture guards against the repulsive doctrine of reprobation. Look, for example, at Matthew 25:34. Here, the King, in addressing those on His right hand, says, "Come, y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ontrast with this the address to those on His left hand (v.41): 'Depart from Me ye cursed [He does not say 'of My Father']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not for you, but]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So also, in Romans 9. In speaking of the "vessels of wrath," it says "fitted to destruction"--fitted not by God surely, but by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when speaking of the "vessels of mercy," it says, "which He had afore prepared unto glory." The grand truth of election is fully established; the repulsive error of reprobation, sedulously avoided (The Mackintosh Treasury, p. 606 footnote).

We find the same in 2 Thessalonians where election is taught in chapter 2, verse 13, but it does not say, "God hath from the beginning chosen some to damnation." No, the reason men are damned is clearly spelled out in 2 Thessalonians 2:10-12 (they are damned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love of the truth and they did not believe the truth that they might be saved). In summary, those that go to heaven have only God to thank; those who go to hell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For a balanced view of what the Bible teaches regarding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see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 전적 타락 무능력Inability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일 믿거니 말씀을 믿을 능력이 없다(p. 809). 행16:31. 바울은 그렇데 말하지 않는다.

### 방언과 대언의 선물(The Gift of Tongues and Prophecy)

고전13:8 노트: 방언과 대언의 선물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능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순절

은사주의의 주장이 맞는다. 방언과 대언은 지금 불필요하다. 그쳤다.

### Practical Sanctification

A lengthy article on sanctification is found on page 1806. In this article nothing is said of the believer's positional sanctification in Christ and also nothing is said about the believer's death to sin, which according to Romans 6 is one of the foundational truths of sanctification. These same omissions are found in the section on "sanctification"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See our studies entitled What is The Believers Rule of Life? , The Christian Life and How to Live It and Jay Adams' Teaching on Sanctification.

### 왕국(The Kingdom)

"축복의 황금시대 즉 왕국 시대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건설된 우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살게 될 것이다. 왕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 시작이 되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즉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충만하게 펼쳐질 것이다.(p. 1638).“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이런 영적인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 침례자 요한 모두 메시아 왕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말하였다.

### 휴거(The Rapture)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체여 올라가고(두 번째 오심) 그 뒤에 세 번째 땅으로 내려와 자신을 보이실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편집자들은 영원한 세상이 오기 전에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부활과 심판도 동일한 때에 이루어지라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 재림(The Second Coming)

The NGSB는 휴거와 재림이 한 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pages 1898-1899).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구분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리이다. 존 맥아더 목사 등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 최종 심판The Final Judgment

The Reformation Study Bible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한 번의 일반적인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p. 1898).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p. 1549).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때, 신약시대 의인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1000년 왕국 이후, 크고 흰 양좌 심판(계20:11-15)

이들은 천년왕국을 고의로 무시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무시하고 부활은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한다.

맥아더, 불테마 등의 개혁주의 목사들 이런 것 다 반대함

### 천년왕국(The Millennium)

The NGSB은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한다. 2005쪽을 보면 천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정체 기간을 뜻한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

의 기간이 천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말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시대라고 왕국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결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p. 2004 and see note under Col. 2:15).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된 상태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자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면 그는 언제 석방되는가?(계20:7-9), The NGSB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 천년왕국 성전(The Millennial Temple)

"겔40-48장의 에스겔 성전 설명은 설계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의 필요성과 순수성을 보여 주는 환상이다. 그것은 땅에서 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p. 1315).

성경 신자들의 특징: 평범한 의미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 겔40-48을 읽어보라.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실제 치수이다. 제사장, 짐승 희생, 성전동쪽에서 물이 나가고 사막이 고쳐지고 사해에 물고기가 산다. 개혁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영해한다. 계11:3의 두 증인, 새 제네바 성경, 이들은 교회들을 나타낸다. 개인들이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굶은 벼룩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할 수 있는가? (계11:3), 어떻게 교회가 죽은 몸으로 묘사되는가?(v.9)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욱이면 안 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 결론

이들의 주장;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주의

휴거는 없다. 계시록은 70년경에 다 성취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네로 등의 로마 황제이다.

전적타락, 무능력, 자유 의지 박탈, 중생 먼저

제한 속죄

이중 예정, 이런 것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한 마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국가 교회를 위한 어거스틴 시스템, 칼빈이 가져다가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자들은 신약 교회를 전혀 모른다, 국가 교회,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 이스라엘론 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이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인간 교리 시스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다.